



경기문화재단 연감 차례

발간사

01. 2008년 일반현황 및 비전 _ 07

- 1. 설립목적
- 2. 설립근거
- 3. 연혁
- 4. 재단 운영기관 분포지도
- 5. 기구 및 인원
- 6. 재정
- 7. 비전 및 경영전략

02. 주요 추진실적 _ 17

- I. 지역문화 특성화와 호혜적 교류 증진
 - I-1. 문화예술 지표조사 개발
 - 경기문화통계 서비스 운영
 - 고객 만족도 조사

- I-2. 문화정책 연구개발 및 평가
 - 경기도 문화정책 정보구축 및 과제 개발
 - 문화예술 사업평가 환류
- I-3 지역문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국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 우수 문화예술 국제교류사업 지원
 - 문화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개발
 - 학제간 교류 활성화
- II.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 II-1. 수준 높은 작품생산 촉진
 -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 공모 지원
 -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 문화예술 기획발굴 지원
 - II-2. 기초예술 육성기반 조성
 - 시각예술 활성화
 - 문학 활성화: 우수 문학행사 및 출판 지원

- 예술가의 집 운영
- III. 문화예술 사회 공공가치 확산
 - III-1. 소외계층 문화복지 증진
 -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지원
 - 다문화 활동 지원
 - 소수자 주제 창작활동에 대한 공모 지원
 - 더불어사는 사회 문화제 개최
 - III-2. 지역문화 균등 발전
 - 지역문화예술 활동 공모 지원
 - 문화기반시설 예술 프로그램 지원
 - III-3. 자생적 시민 문화예술 육성
 - 자생적 지역문화축제 지원
 -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공모 지원
 - 아마추어 동호회 문예활동 지원
 - III-4. 문화예술교육 저변 확대
 - 학교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 사회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 문화예술 매개 인력 양성
- 문화예술 교육 교안연구 및 교재 개발
- 사회 취약계층 문화매개 인력 양성
- III-5. 통합 문화예술 홍보
 - 경기문화재단 총서 발간
 - 재단 홍보매체 <경기문화나루> 발간

03. 경기문화재단연구원 _ 65

- I-1.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
 -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문화재 보존
- I-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콘텐츠 개발
 - 무형문화재 활동 활성화 지원
 -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지원
 -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 영상물 제작

- 경기전통예술의 전승보급
- 전통문화연구 및 콘텐츠 개발
- 문화재 연보 및 기획총서 발간
- 문화재 학술연구 및 교육 지원
-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 사업

04. 문화시설 통합 운영 _ 75

- I. 경기도박물관
- II. 경기도미술관
- III. 백남준아트센터
- IV. 경기도자박물관

05. 박물관 건립 및 위탁사업 _ 93

- I. 실학박물관 개관 준비
- II.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추진
- III.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

- IV. 경기창작센터 조성
- V.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
- VI. 도사편찬 사업
- VII. 경기 바로알기 연구용역 사업
- VIII. 경기사이버도서관 운영
- IX.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06. 부록 _ 101

- I.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 II. 경기문화재단 정관
- III. 이사 및 감사 현황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꿈과 경기도의 미, 경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경기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8년은 경기문화재단 설립 11주년이며,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재단으로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와 2008년 경영성과 및 사업추진 결과를 모아 『2008 경기문화재단 연감』으로 엮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걸어온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단의 사업들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2008년은 재단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박물관과 미술관의 통합원년이기도 하지만, 백남준아트센터를 많은 사람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개관한 것을 비롯해 기전문화재연구원과 조선관요박물관의 명칭을 도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연구원과 경기도자박물관으로 각각 명칭을 바꾼 해이기도 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10년 동안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중심에서 도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향수 기회 확대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입장권 연중무휴 개관 및 개관시간 연장, 그리고 새로운 전시기획과 리모델링 등 내·외형적 변화를 계속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재단의 변화 노력과 업무 성과를 『2008 경기문화재단 연감』을 통해 부족하거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재단 사무처의 경우 △지역문화 특성화와 호혜적 교류 증진 △맞춤형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사회 공공가치 확산 등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경기를 실현하는 전체 사업 기조를 분석·정리했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크게 △문화유적 학술조사 및 보존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콘텐츠 개발 등 두 분으로 정리해 사업추진 성과와 업무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 통합운영기관들을 전시내용과 특징별로 요약해 통합원년의 문화예술 활동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향후 개관할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창작센터는 물론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남한산성복원정비사업, 경기사이버도서관 운영사업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하여 일류 문화선도기관으로서의 재단의 미래상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이처럼 경기도 문예부흥을 위해 노력한 지난 10년의 토대위에 다양한 문화예술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진정한 문화예술 허브기관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통합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창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경기문화재단의 성장 발전을 지켜봐주신 분들의 진심어린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빈